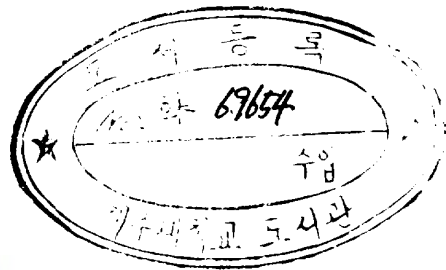


碩士學位請求論文

한국어 정도부사의 의미 분석

指導教授 崔圭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高利金

1995年 8月

한국어 정도부사의 의미 분석

指導教授 崔 圭 一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高 利 金



高利金の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5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金
金
崔

洪
泰
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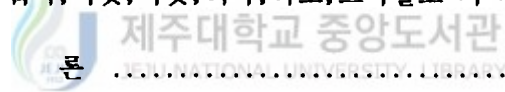
植
琨
一



목 차

◇국문 요지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1
3. 연구 범위	3
4. 선행 연구	4
II. 정도부사의 의미 분석	7
1. 도입	7
2. '가장, 아주, 무척, 몹시, 매우'의 의미 분석	10
3. '꽤, 썩, 참 꽤'의 의미 분석	25
4. '훨씬, 한결'의 의미 분석	32
5. '워낙, 자못, 사뭇, 더욱, 하도, 그야말로'의 의미 분석	36
III. 결론	46
◇ 참고문헌	49
◇ ABSTRACT	51



◇ <국문 요지>

한국어 정도부사의 의미 분석

高 利 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崔 圭 一

이 글에서는 정도부사가 피수식어와 정도성 자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몇 개의 정도부사의 개별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단어의 보편적 의미를 통해 성분 분석을 한 뒤, 공기관계 속에서 개별 의미 바탕을 찾아내고, 각각의 정도부사들의 연관 관계를 밝힘으로써 의미 차이를 변별하였다. 이때, 피수식어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피수식어를 일반 정도어, 양분 정도어, 양 정도어 그리고 질/양 정도어로 분류한 뒤 정도어와의 공기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가장, 아주, 몹시, 무척, 매우, 펴, 씩, 참, 꽤, 훨씬, 한결, 워낙, 자못, 사뭇, 더욱, 하도, 그야말로’ 등 몇 개의 정도부사에 한정하여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아주, 몹시, 무척, 매우’는 일반 정도어와 공기할 때 각각의 의미 바탕이 구별되지 않아 서로 유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가장’은 [최고점], ‘아주’는 [지나침], ‘몹시’는 [-적 의미] [질], ‘무척’은 [질], ‘매우’는 [강조]를 각각 개별 의미로 갖는다.

둘째, ‘펼, 씩, 참, 꽤’는 각각 [질], [+적 의미] [뛰어남], [진실성], [질/양]의 의미 특성을 갖는다. 일반 정도어와 호응할 때는 그들 의미들이 유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월신, 한결’도 유의어로 인식되지만, ‘월신’은 [기준과 큰 차이]를, ‘한결’은 [벗어남] [미러지향성] [+적 의미]를 개별 의미로 가져 의미 차이를 보인다.

넷째, ‘워낙’은 [원인] [두드러짐], ‘자못’은 [강조] [생각한 정도를 넘음], ‘사뭇’은 [질/양], ‘더욱’은 [기준보다 큼], ‘하도’는 [원인] [지나침], ‘그야말로’는 [진실성]을 각각 개별 의미로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도성의 가변성과 불안정성은 의미 분석의 객관화를 어렵게 하지만, 단어의 개념적 의미를 생각하여 성분 분석과 공기 제약의 방법으로 정도부사의 의미를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이들 부사들 외에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부사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일은 다음 과제로 남기겠다.

I. 서론

1. 연구 목적

근리에 등급화나 자질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정도부사의 성격을 밝히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의미론의 미개척 분야를 탐색하는 의의도 있겠지만, 의미론의 영역에서 그동안 쌓아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 의식을 언어학적으로 밝혀 본다는 데 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다른 부사에 비해 정도부사는 속성의 드러나는 정도를 보이는 것¹⁾이므로 주관성이 강하다. 이 글에서는 그 주관성을 객관화시켜 정도부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의미는 주관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쓰는 사람이나 생활에 따라서 그 뜻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언중들이 어떤 낱말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의미가 있게 마련이다. 의미의 가변성은 그러한 개념적 의미를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정도부사가 갖는 정도성의 가변성과 불안정성은 의미 분석의 객관화를 어렵게 하지만, 정도부사의 개념적 의미를 생각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정도부사의 의미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단어의 의미는 문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의미의 분석은 어떤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구조적(structural, syntagmatic) 기능의 관찰과

1) 최현배(1971:598),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어떤 장면에서 쓰이는지는 장면적(situational) 기능의 관찰에 주목해야 한다²⁾.

이처럼 의미 분석은 문맥에 의지해야 하며, 다음으로 의미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意味場 이론과 成分分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單語場(남말밭)이란 의미상 관련성이 깊은 단어들끼리의 집합을 뜻하며 이 집합적 단어들의 공통된 의미 영역을 意味場(semantic field)이라 하는데, 이는 단어의 의미를 보다 정밀하게 기술하기 위해 단어들을 더 작은 의미들의 구조체로 인식하고 그 구조를 밝히려는 방법이다. 이는 Trier의 의미장 이론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고, 이후 Porzig, Weisgerber, Coseriu 등이 발전시켰다. 의미장 이론이 단어 의미의 연관 관계를 따지는 것이라면, 개별 단위의 의미 분석면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 成分分析이다.

한 단어의 의미를 어떤 성분의 집합으로 보고 그 의미를 이러한 성분으로 나누어 보는 것을 의미의 成分分析(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이라 한다. 이 방법으로 특정한 단어는 하나의 의미 영역에 속한 어휘 단위로 이해되고 여기에 변별적 특성을 나타내는 意味成分들이 설정됨으로써 개별 의미 영역에 속한 모든 어휘의 의미차가 밝혀진다.

그런데, 어떤 의미 영역에 속한 어휘는 공통 성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성분에서 통사적 선택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이는 단어의 共起制約(co-occurrence restriction)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느 특정한 어휘와 독점적으로 결합하거나 공통적인 의미 성분을 갖는 어휘류에 대해 일방적인 예상이 성립되는 경우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에 언급한 의미 분석 방법으로 정도부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단어의 보편적 의미를 통해 성분 분석을 한 뒤, 공기 관계 속에서 개별 의미 바탕을 찾아내고, 각각의 정도부사들의 연관 관계를 밝힘으로써 의미 차이를 변별할 것이다.

2) 김종택·천시권, (1984:64), 국어 의미론, 형설출판사.

3. 연구 범위

정도부사의 기능은 문장 안에서 특정 어휘나 구에 대하여 그 정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구실을 한다. 정도부사가 갖는 정도성(degreeness)의 의미 자질만으로 정도부사 전부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글에서는 어휘 수식에 한정하여 정도부사만을 다루도록 한다.

정도부사에 대해서 최헌배(1975)는 정도의 높임을 보이는 것과 낮음을 보이는 것으로 정도 부사를 분류한 바 있다. 이어 서정수(1975)는 정도부사를 그 정도성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그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석규(1987)는 정도부사를 기준 관여와 강화/약화의 여부로 그 분류를 더욱 정밀화하였는데, 아직도 정도부사의 범위와 목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글에서 다룰 정도부사는 한자어 부사나 전성부사는 제외하고 어휘 수식을 하는 다음의 부사들을 대상으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가장, 아주, 매우, 몹시, 부척,
- (2) 펍, 씩, 참, 꽤,
- (3) 월씬, 한결,
- (4) 워낙, 자못, 사뭇, 더욱, 하도, 그야말로.



4. 선행 연구

정도부사의 의미 분석은 정도부사 전체가 공유하는 정도성의 의미 자질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다음 연구들은 정도성과 관련시켜 정도부사의 등급과 분류화를 보여준다.

최헌배(1971)는 정도의 높임을 보이는 것과 낮음을 보이는 것으로 나누어 정도부사를 체계화시켰다.

- 1) 정도의 높임을 보이는 정도어찌지

매우, 훨씬, 펍, 끔찍이, 대단히, 심히, 극히, 지극히, 하고, 너무, 하도,
가장, 자못, 영, 아주, 전혀, 꽤

2) 정도의 낮음을 보이는 정도어찌지

조금, 좀, 약간, 거의(거진)

그러나, 이 분류는 정도부사의 목록만 제시한 것으로 각 정도부사의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다.

서정수(1975)에서는 6단계로 나누고, 정도부사를 상태동사 수식 부사로 보고 있다.

1) 가장, 지극히, 아주, 심히, 매우, 대단히, 굉장히, 참, 몹시, 그야말로

2) 유난히, 유달리, 워낙, 훨씬, 더욱, 일층, 한결

3) 자못, 사뭇, 무척, 펍

4) 상당히, 꽤, 제법

5) 너무, 하도

6) 그리, 그닥지

그런데, 이 6단계 분류화에는 그 분류 기준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철주(1982)는 다음과 같이 5등급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1등급: 좀

2등급: 제법, 꽤, 펍, 씩

3등급: 무척, 너무

4등급: 몹시, 되게, 상당히, 대단히, 굉장히

5등급: 가장, 제일

이 분류도 서정수와 마찬가지로 분류의 근거가 없다.

이충우(1986)에서도 서정수(1975), 정철주(1982)에 나타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음에 보는 것처럼 정도부사 몇 개를 직관상 3등급으로 나누고, 사전적 의미로써 개별 의미 바탕을 나타내었다.

1등급: 좀, 조금, 덜, 약간

2등급: 무척, 딱, 아주, 심히, 참

3등급: 가장, 제일, 지극히

이석규(1987)에 이르러 정도부사의 분류와 등급이 뚜렷해지고 더욱 정밀화되었다.

기준 관여	- 기준	+ 기준
강화/약화		
강 화	크기 1: 무척, 몹시, 아주, 매우, 너무2 크기 2: 딱, 씩, 참 크기 3: 꽤	크기 1: 가장 크기 2: 너무1, 한결, 훨씬 크기 0: 더
약 화	크기 1: 좀	크기 1: 거의, 제법 크기 2: 겨우, 고작 크기 0: 덜

위 연구들에서 본 것처럼 공통 의미 성분인 정도성에서조차 그 범위가 뚜렷하지 않아 등급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처럼, 같은 부사라도 연구자의 주관과 기준, 그리고 정도부사 자체가 갖는 불안정성 때문에 그 개별 의미의 변별 의미까지도 분석이 어려웠다. 정도부사 사이에 나타나는 중첩 의미와 개별 의미를 변별하는 게 정도부사 의미 분석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등급 설정보다는 의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정도부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정도성 비교가 가능하고, 등급을 설정할 때 직관이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그 직관을 객관화할 수 있다. 정도성 비교는 결국 정도부사의 의미를 밝히는 수단이므로, 이 글은 정도부사의 의미 분석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래서, 선행 연구자들이 다루었던 정도부사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여기에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몇 개의 정도부사들을 덧붙여 의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정도부사의 의미 분석

1. 도입

정도부사의 의미 자질을 찾기 위해 여러 문맥 속에 나타나는 부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수식어의 범위를 한정짓지 않고서는 용언과 관형사, 부사, 체언과의 공기 관계를 전부 살피기란 불가능하다. 피수식어의 성격에 따라 이를 수식하는 정도부사의 의미가 드러나므로, 정도부사와 피수식어는 정도성 바탕을 공유하며 연결되는 것이라는 박선자(1983:64)의 견해에 착안하여, 피수식어를 정도성의 바탕에 따라 분류한 이석규(1987:36)의 시도는 정도부사의 의미 분석에 중요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정도어의 의미 바탕에 따라서 정도부사의 수식의 폭이 결정되므로 정도어의 종류에 따라서 공기관계를 살피는 것이 정도부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길이다. 앞으로 정도부사의 의미 파악을 위해 피수식어와의 공기 관계를 살필 때, 이석규가 분류한 정도어 네 종류를 이용하고자 한다. 정도어를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석규, 1987:36 - 39).



1) 일반 정도어: 이는 대부분의 정도부사들로부터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정도어로, 어떤 특수한 측면의 정도 바탕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질, 양, 과정, 크기…… 등의 다양한 정도 바탕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형용사, 부사, 관형사, 동사, 명사 등이 포함되며 정도어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2) 양분 정도어: 정도성을 여러 단계로 측정할 수 없으며, '그러하거나 그러하지 않거나', '완전하거나 불완전하거나'한, 즉 '+, -' 로만 측정이 가능한 정도어들이 이에 속한다.

3) 양 정도어: 정도성을 양으로만 측정할 수 있으며 동사 일부만 이에 해당한다. 양분 정도어와 영역을 공유하는 정도어들도 있다.

4) 질/ 양 정도어: 질과 양 두 가지 측면에서 정도 측정이 가능하며 동사만 여기

에 포함된다.

이들 정도어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해 본다.

일 반 정 도 어	형용사	멀다. 가깝다. 기쁘다. 슬프다. 반갑다. 즐겁다. 괴롭다. 예쁘다. 그립다. 싫다. 좋다. 착하다. 어질다. 사랑스럽다. 흉하다. 해롭다. 씩씩하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비싸다. 슬기롭다. 멍청하다. 비슷하다. 크다. 많다. 바쁘다. 쓸쓸하다. 등
	동사	사랑하다. 그리워하다. 감사하다. 부풀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원하다. 빛나다. 반짝이다. 번쩍거리다. 꾸물거리다. 애쓰다. 뚱뚱해지다. 훌쩍해지다. 믿다. 굶다. 발달하다. 향상하다. 등
	부사	깨끗이, 똑똑히, 두터이, 널리, 가벼이, 깊이, 많이, 높이, 길쭉이, 단단히 빨리, 조용히, 정확히, 명백히, 천천히, 뚱뚱히, 잘, 간절히, 괴로이, 등
	명사	바보, 미인, 부자, 뚱뚱이, 애주가, 애연가, 공처가, 구두쇠, 걱정이, 암체, 달변가, 멋쟁이, 건설적, 매력적, 과학적, 등
관사	형용사	새, 헌, 옛, 잊, 늦
양	형용사	유한하다. 무한하다. 틀림없다. 판이하다. 명백하다. (확실하다)(분명하다) (옳다) (같다)
	동사	주다. 버리다. 서다. 앉다. 눕다. 펴다. 뱉다. 명중하다. 살아나다.

분 사	침묵하다. 소유하다. 대여하다. 오다. 가다. 맞추다. 침몰하다. 있다. - 버리다. -뻘하다.
정 명 사	수제, 악마, 전문가, 기술자, 일인자, 최고, 첫째, 정상.
도 부 사	아까, 방금, 노상, 곧, 마냥, 힘껏, 마구, 활짝, 왈칵, 번쩍, 가장.
어 관 형 사	첫, 온갖, 거짓, 온, 갖은, 몹쓸.
양 정 도 사 어	동 생기다. 춤추다. 데리고 다니다. 운반하다. 거래하다. 출입하다. 알다. 죽다. 팔다. 심다. 낳다. 받다. 잡다. 기억하다. 만들다. 오다. 가다. 쓰다. 맞추다. 높다. 뛰다. 다니다. 이야기하다.
질 양 정 도 사 어	동 잔소리하다. 다치다. 기다리다. 부풀다. 팽창하다. 데다. 명들다. 웃다. 울다. 부르다. 흐르다. 바라다. (구름 따위) 끼다. 비오다. (눈, 비) 내리다. 쏟아지다. 굶다. (메) 맞다. 뛰다. 녹다. 싸우다. 등

2. '가장, 아주, 무척, 몹시, 매우'의 의미 분석

(1) 가장

1) 사전 의미

(여럿 가운데) 어느 것보다 더, 으뜸, 제일, 첫째, 아주, 매우

2) 유의어

ㄱ. 제일, 최고로, 첫째로

ㄴ. 매우, 무척

ㄷ. 극도로, 최대한, 최대로

3) 의미 자질 분석

'가장'은 1)과 2)에서 본 것처럼 '아주, 매우, 무척'과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유의어일 뿐 실제 쓰임에서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가장'의 개별 의미를 예문 (1), (2), (3)에서 찾을 수 있다.

(1) 금년 들어 오늘이 가장 [*아주/*매우/*몹시 /*무척] 덥다.

(2)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실질적인 힘과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일은 탈냉전 시대 미국의 엘리트들이 가장 [*아주/*매우 *몹시 /*무척]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3) 영희, 순희, 정희 셋 중에서 영희가 가장 [*아주/*매우/*몹시/*무척] 예쁘다.

위 문장들은 각각 '더웠던 어떤 날보다도'와 '먼저 해결해야 할 어떤 일들보다도', 그리고 '셋 중에서'라는 비교 대상을 전제로 하여, 그 중에서 최고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 즉, '가장'이 쓰이는 때는 어떤 범위를 전제로 할 때이며 그 안에서는 최고일 때이다³⁾.

'가장'에는 '최고'라는 의미 자질이 강조된 나머지 정도부사 중 정도가 제일

3) 이석규(1987: 83), "현대국어 정도 어휘의 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심하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만 원, 2만 원, 3만 원짜리 옷들이 있는 가게에서 (4), (5)와 같은 발화를 생각해 보면, '가장'의 의미 자질은 기준의 범위 안에서만 의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가장 비싼 옷을 주세요.

(5) 아주 비싼 옷을 주세요.

(4)의 경우는 청자 입장에서 가장 비싼 게 3만 원짜리 옷이 되지만, (5)의 경우는 그것보다 더 가격이 비싼 옷이 있음을 전제로 '아주 비싼 옷은 없지만 3만 원 짜리는 있다.'는 발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즉, '아주'의 정도성이 '가장'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으며 '가장'의 정도성은 기준 관어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의 공기 제약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6) (일반 정도어)

ㄱ. 영이가 가장 예쁘다.

ㄴ. 아버지를 가장 사랑한다.

ㄷ. 영이가 가장 빨리 등교했다.

ㄹ. 영이가 가장 구두쇠다.

ㅁ. 가장 새 옷을 갖고 싶다.

(7) (양분 정도어)

ㄱ. ?영이 생각이 가장 틀림없다.

ㄴ. *이 책을 영이에게 가장 주었다.

ㄷ. 영이가 가장 수재이다.

ㄹ. 영이가 가장 힘껏 달렸다.

ㅁ. 그것이 가장 첫 만남이다.

(8) (양 정도어)

ㄱ. #영이가 그 사실을 가장 알았다.

ㄴ. #영이가 선물을 가장 받았다.

(9)(질/양 정도어)

ㄱ. #영이가 가장 생각했다.

ㄴ. #어머니가 가장 잔소리했다.

‘가장’은 일반 정도어와는 자연스럽게 호응하지만, 여러 단계의 정도성을 갖는 양 정도어, 질/양 정도어와는 공기 제약을 받는다. 그것은 ‘가장’이 정도의 단계성 없이 최고점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양분 정도어와 호응하는 것은 양분 대립의 극성과 ‘가장’의 최고점이 통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⁴⁾

‘가장’의 의미 자질은 【〔정도성〕〔기준〕〔강화〕〔최고점〕】이라 할 수 있다.

(2)아주

1)사전 의미

ㄱ. 더할 나위 없이 대단히(씩), 다시 생각할 여지 없이, 매우, 씩, 대단히, 몹시

ㄴ. 완전히, 전혀

ㄷ. 영원히, 영영

2)유의어

ㄱ. 씩, 매우, 무척, 퍽, 대단히, 실로, 진실로, 정말

ㄴ. 영, 영영, 영원히

ㄷ. 도부지, 당최, 당초에, 전혀, 아예, 워낙

3)의미 자질 분석

4)이석규(1987:85), 앞의 책.

- (10) ㄱ. 그곳은 한국에서 아주 [매우/?몹시/부척] 좋은 학교이다.
 ㄴ. 오늘이 아주 [매우/몹시/부척] 덥다.
 ㄷ. 우리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는 지금과 상황이 아주 [매우/
 몹시 /부척] 달랐다.

(10)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는 상태 동사 ‘좋다, 덥다, 다르다’ 앞에서 ‘매우, 몹시, 부척’과 대치되어 쓰이면서 정도 강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우, 몹시, 부척’과의 대치가 불가능하다.

- (11) ㄱ. 철수가 고향으로 아주 [*매우/*몹시/*부척] 갔다.
 ㄴ. 설마 나를 아주 [*매우/*몹시/*부척] 버리지지는 않으실
 거야.
 ㄷ. 하룻밤을 여기서 아주 [*매우/*몹시/*부척] 묵어 갔으면
 싶소.
 ㄹ. 그 사람은 아주 [*매우/*몹시/*부척] 죽었다.

(11)은 ‘아주’가 동작 동사를 수식할 때 다른 정도어와 대치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석규(1987)는 ‘아주’가 양분 정도어와 공기하여 [완전성] [완전성]이란 자질을 가져 [완전성] 자질이 없는 ‘매우, 몹시, 부척’과 대치되면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아주’는 [완전성]을 갖는 정도부사로서, ‘매우, 몹시, 부척’과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양분 정도어와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성]이란 의미 자질을 ‘아주’의 개별 의미로 보면서 다른 정도부사와 의미 차이를 두고 있으며, 동작 동사와의 공기도 [완전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아주’는 사전 의미에서 ‘완전히, 영원히’의 의미 영역 안에서 쓰이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완전히, 영원히’의 부사 범주이다. 이때 ‘아주’는 서술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상태’와 ‘영원한 상태’로 형용하는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아주’의 이러한 범주적 모호성에 대해 서정수(1975:93)도 의문을 나타낸다. “그는 아주 갔다.”에서 ‘아주’가 ‘완전히’의 의미로 쓰인다고 하며 ‘아주’가 상태 동사와 어울릴 때는 정도부사로, 동작 동사와 어울릴 때는 동태부사(양태

부사)로 보고 있다.

[완전성] 이 정도성인지 상태성인지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12)철수가 고향으로 아주 갔다.

(12)의 의미는 가버린 정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가버린 완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⁵⁾ '아주'는 [완전성]의 의미 자질을 가져 상태부사로서 동작 동사를 수식하며 이때 정도부사의 기능만 갖는 '매우, 몹시, 무척'과는 바뀔 수 없다.

(13)가 .이젠 아주 [*매우/*몹시/*무척] 밤이다.

나 .아주 [*매우/*몹시/*무척] 끝까지 가거라.

다 .아주 [매우/*몹시/무척] 미인이다.

리 .?아주 [*매우/*몹시/*무척] 형이다.

(13)은 '아주'가 명사를 수식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근래에 정도부사의 명사 수식은 정도성의 공기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미인, 구두쇠, 부자' 등은 정도를 나타내어 정도부사와 공기할 수 있으나, '형'과 같은 명사는 '의사, 선생, 군인'처럼 정도성의 결여로 정도부사와 호응하지 못한다.⁶⁾

(13)가 ., 나 .의 경우는 각각 '완전히 밤이 된 상태', '완전히 끝인 상태'를 나타낸다. 리 .의 경우는 '아주'가 정도부사일 때 '형'이 비정도어이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제나 동생을 때려 울리는 조카만 보아온 삼촌이 몇 년 후 그 조카가 동생을 잘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너도 이젠 아주 형이구

5)이충우(1986:22)에서는 "철수가 고향으로 아주 갔다.", "그 일은 아주 끝났다."

에서 '아주'가 정도부사가 아닌 '영원히'의 뜻으로 쓰이는 상태부사라 하였다. 이충우(1986), "국어 정도부사의 동사 수식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6)김경훈(1977:55 - 57), "국어의 부사 수식 연구", 국어 연구 제 37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 연구회.

박선자(1983:113), "우리말 어찌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나!”라고 말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는 형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춘 상태의 의미가 되어 ‘아주’의 상태부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완전성]의 의미 자질에 대해 정도어와의 공기 관계를 더 살펴 보기로 한다.

(14)(일반 정도어)

- ㄱ. 날이 아주 따뜻하다.
- ㄴ. 나는 그를 아주 사랑한다.
- ㄷ. 방을 아주 깨끗이 청소한다.
- ㄹ. 영이는 아주 바보다.

(15)(양분 정도어)

- ㄱ. 그가 합격했음이 아주 틀림없다.
- ㄴ. 책을 아주 주었다.
- ㄷ. 영이는 아주 수재다.
- ㄹ. 영이는 아주 힘껏 달렸다.

(16)(양 정도어)

- ㄱ. 나무를 아주 심었다.
- ㄴ. 생일 선물을 아주 받았다.
- ㄷ. 영이는 집에 아주 왔다.

(17)(질/ 양 정도어)

- ㄱ. 영이가 아주 다쳤다.
- ㄴ. 그이가 아주 웃었다.
- ㄷ. 눈이 아주 내린다.

앞에서 ‘아주’는 모든 정도어와 호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4), (17)에서는 ‘아주’가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반면, (15), (16)에서는 [완전

성/완결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16)의 경우는 양으로 해석하면 비문이 되지만 동작의 완결성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다.

이처럼, '아주'는 정도부사로서 일반 정도어, 질/양 정도어와 공기하여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며, 상태부사로서 양분정도어, 양 정도어와 공기하여 '완전성'을 나타낸다. 즉, '아주'는 '정도가 심함'과 '완전성'의 의미가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주'는 '완전성'의 의미일 때 상태부사이던 것이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정도부사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주'는 '완전히'와 '정도가 심함'으로 다의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정도부사로서의 '아주'의 의미 자질은 【(정도성) (강화) (지나침)】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 논의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영역	가 장	아 주
의미 자질		
기 준	+	-
최 고 점	+	±
지 나 침	-	+

7) 최현배(1971:598)는 정도 어찌지는 스스로 속성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속성의 정도를 보이므로 상태부사에 전주면 제 2차적이라 하였다.

(3) 몹시, 무척, 매우

몹시

1) 사전 의미

더할 수 없이 심하게, 대단히, 심히, 매우

2) 유의어

심하게, 매우, 대단히, 상당히, 끔찍이, 끔찍스레, 심히, 무척, 굉장히, 아주, 되게, 딱, 지지리, 지긋지긋하게, 잔생이

무척

1) 사전 의미

건줄 데 없이 매우, 다른 것보다 훨씬, 보통 정도를 지나서 훨씬, 매우, 대단히

2) 유의어

매우, 대단히, 훨씬, 많이, 굉장히, 엄청

매우

1) 사전 의미

표준 정도(보통 정도, 생각했던 정도)보다 적잖이 지나치게, 대단히, 몹시

2) 유의어

대단히, 딱, 무척, 굉장히, 상당히, 꽤, 썩, 몹시, 많이, 지나치게, 더없이, 더할 수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한없이, 경치계, 자못, 적잖게, 제법, 극히, 참으로, 천만

‘매우, 몹시, 무척’은 사전 의미와 유의어가 서로 대치형식의 순환적인 의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어사(語辭)는 개별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같이 다루어 그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18) 7. 나는 그가 뭔가 [몹시/무척/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ㄴ. 그 여자는 [몹시/무척/매우] 행복해 보였다.

ㄷ. 10년 전에 비해 과학 문명이 [몹시/무척/매우] 발전했다.

(18)에서 보듯이 ‘몹시, 무척, 매우’는 대부분의 문장에서 서로 대치되어 쓰이면서 그 개별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숨겨진 개별 의미를 여러 문맥과 발화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3) 의미 자질 분석

‘몹시’의 의미 자질

박갑수(1984:26)는 ‘몹시’가 ‘정도가 지나쳐, 그 가치가 마이너스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았다.⁸⁾ 한길(1983)은 ‘몹시’에 의해 꾸밈을 받는 낱말이 [+적 의미]이면 부자연스런 문이 되고, [-적 의미]이면 자연스런 문이 된다고 하였다. 이석규(1987:49)에서는 ‘몹시’에 대하여 40 - 50 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부정적 정도성 강화에만 국한하여 쓰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부정적 정도성의 한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젊은 층에서는 긍정적인 정도성(예: 사랑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등)과도 통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몹시’는 연령, 지역, 개인에 따른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도성’이라는 의미 바탕을 내세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질]의 의미 바탕을 지닌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상이므로 [+질]만을 ‘몹시’의 개별 바탕으로 설정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박갑수와 한길의 논의를 받아들일 것인데, 그것은 대부분의 발화에서 ‘몹시’의 부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부정적 의미’만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몹시’에 ‘심하게, 끔찍하게, 지긋지긋하게’의 의미 영역도 있기 때문에 언중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한 부정적 의미를 (19)에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8) 이충우(1986:21)에서 주)를 재인용.

(19)ㄱ. 누가 몹시 아픈가 봐요.

ㄴ. 그 눈이 몹시도 슬픈 것이라고 이쁜이는 생각합니다.

ㄷ. 시간이 몹시 지리했습니다.

ㄹ. 우연히 선생님을 만났던 겨울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몹시도 마음이 추웠습니다.

한편, ‘몹시’는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적 의미]를 가진 피수식어와도 두루 쓰인다. (20)을 보자.

(20)ㄱ. 이 말을 들은 승훈은 몹시 반가워했다.

ㄴ. 선장은 배를 끌어안고 몹시 웃는다.

ㄷ. 그런 상상은 몹시 즐거운 심심풀이었다.

그렇지만, ‘몹시’는 [+적 의미]나 [양 정도어]와 어울릴 때 의미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몹시’에 [-적 의미] [질 정도어]의 의미 자질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1)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1)ㄱ. 생일 선물을 *몹시 [?부척/*매우] 받았다. [양 정도어]

ㄴ. 그 사람의 영향을 몹시 [부척/매우] 받았다. [질 정도어]

위에서 동사 ‘받았다’는 이석규(1987)에서 양 정도어로 분류되어 [양]의 의미 자질을 갖는 ‘부척’과만 공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영향을 받았다’에서는 ‘몹시’의 ‘심하게’의 의미와 더불어 [질]의 의미 자질을 보이기도 한다.

(22)ㄱ. 그 사람은 몹시 [부척/매우] 못생겼다.

ㄴ. 그 사람은 *몹시 [부척/매우] 잘생겼다.

(22)에서 주의할 것은 ‘몹시’가 ‘못생겼다’처럼 풀이말이 [-적 의미]일 때

의미가 자연스럽고, '잘생겼다'처럼 [+적 의미] 일 때 부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이것은 '몹시'가 [-적 의미] 를 개별 의미로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23)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23)ㄱ. 몹시 [부척/매우] 구두쇠이다.

ㄴ. *몹시 [부척/매우] 미인이다.

ㄷ. 몹시 [부척/매우] 가난하다.

ㄹ. *몹시 [부척/매우] 적당하다.

이로써 '몹시'는 [-적 의미] 와 [질] 을 개별 의미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부척'의 의미 자질

(24)(일반 정도어)

ㄱ. 나는 자동차 타는 것을 부척 좋아한다.

ㄴ. 만주족은 한쪽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부척 애썼습니다.

ㄷ. 내게는 그 일이 부척 위험하게 보이는데요.

ㄹ. 부척 [바보 /미인/구두쇠/계으름뱅이/멋쟁이] 이다.

(25)(양분 정도어)

ㄱ. *그의 죽음은 부척 확실한 사실이다.

ㄴ. *그 일을 부척 잊어버렸다.

ㄷ. 그 여자는 *부척 [수재/악마/기술자] 이다.

ㄹ. 나는 부척 힘껏 달렸다.

(26)(양 정도어)

ㄱ. ?감기에 걸린 이들이 부척 생겼다.

ㄴ. ?나는 생일 선물을 부척 받았다.

ㄷ. ?색종이로 학을 무척 만들었다.

(27)(질/양 정도어)

- ㄱ. 이분도 자네를 무척 기다리셨네.
- ㄴ. 아까 부딪힌 데가 무척 멍들었다.
- ㄷ. 비가 무척 온다.

‘무척’은 일반 정도어, 질/양 정도어와 호응이 자연스러우며, 양 정도어와의 호응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양분 정도어와는 공기 제약을 받고 있음을 위 예문은 보여준다. 그리고 (24)에서 볼 수 있듯이, ‘무척’은 [+적 의미]의 정도어든 [-적 의미]의 정도어든 두루 공기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몹시’가 [-적 의미]와만 호응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매우’의 의미 자질

‘매우’는 (28)에서 보듯이 [+적 의미]든 [-적 의미]든 두루 공기한다.

- (28) ㄱ. 매우 [무척/*몹시] 애국자이다.
ㄴ. 매우 [무척/*몹시] 미인이다.
ㄷ. 매우 [무척/몹시] 추남이다.
ㄹ. 매우 [무척/몹시] 구두쇠이다.

한길(1983)은 이를 두고 ‘매우’가 정도 크기가 [큼]일 뿐, [+적 의미] 자질이 포함되지 않고 정도의 크기만 포함된다고 보았다. ‘매우’의 개별 의미는 이처럼 두드러지지 않다. 유의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매우’는 ‘몹시, 무척’처럼 개별 의미가 두드러지지 않고 일반적인 정도부사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매우’와 정도어와의 공기 관계를 살펴 보자.

(29)(일반 정도어)

- ㄱ. 매우 [멀다/기쁘다/즐겁다]
- ㄴ. 매우 [사랑하다/걱정한다]
- ㄷ. 매우 [깨끗이/잘] 한다.

(30)(양분 정도어)

- ㄱ. *인간의 수명은 매우 유한하다.
- ㄴ. *그는 매우 죽었다.

(31)(양 정도어)

- ㄱ. *그는 비밀을 매우 안다.
- ㄴ. *그는 선물을 매우 받았다.

(32)(질 양 정도어)

- ㄱ. *나는 그 일을 매우 생각했다.
- ㄴ. *비가 매우 내리고 있다.

‘매우’는 일반 정도어와 공기할 뿐 양분 정도어, 양 정도어, 질/양 정도어와의 호응은 어색하다. 또한 피수식어의 의미가 [+적 의미] 든, [-적 의미] 든 ‘무척’처럼 두루 쓰이므로 그런 점에서는 ‘무척’과의 유의성이 ‘몹시’보다는 강하게 나타난다. ‘매우’는 그 개별 바탕이 [양] 이나 [질] 로 나타나지는 않고, 정도어를 [강조] 하는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몹시, 무척, 매우’를 같이 다루어 개별 의미와 각각의 의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3)(일반 정도어)

- ㄱ. 인물은 의리가 강하고 물욕이 없는 이익운을 [몹시/무척/매우] 좋아했다.
- ㄴ. 산길이 익숙치 않은 터라 [몹시/무척/매우] 힘들었다.

- ㄷ. 당신들께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자를 검토해 주신다면 저는 {?몹시/무척/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ㄹ. 서로 각자의 길을 견제 된 것을 {?몹시/무척/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 ㅁ. 상대편 대표가 주의의 관심을 끄는 데 {?몹시/무척/매우} 효과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 ㅂ. 이것은 {몹시/무척/매우} 헛 옷이다.

(34)(양분 정도어)

- ㄱ. 인간의 수명은 {*몹시/*무척/*매우} 유한하다.
- ㄴ. 폭풍으로 배가 {*몹시/*무척/*매우} 침몰했다.
- ㄷ. 그는 {*몹시/*무척/*매우} 수재이다.
- ㄹ. 꽃이 {*몹시/?무척/?매우} 활짝 피었다.

(35)(양 정도어)

- ㄱ. 새들이 {*몹시/?무척/*매우} 날아간다.
- ㄴ. 나무를 {*몹시/?무척/*매우} 심었다.
- ㄷ. 나는 그 사실을 {*몹시/?무척/*매우} 기억한다.

(36)(질/양 정도어)

- ㄱ. 이분이 자네를 {몹시/무척/*매우} 기다리셨네.
- ㄴ. 나는 그 말을 듣고 {몹시/무척/*매우} 울었다.
- ㄷ. 비가 {몹시/무척/*매우} 온다.

(33) - (36)을 살펴 보았을 때 ‘몹시, 무척, 매우’는 일반 정도어와의 호응에서 서로 유의 관계를 보일 뿐, 양분 정도어, 양 정도어, 질/양 정도어와의 호응 관계에서는 대치가 불가능하다. 특히 (33)에서는 ‘몹시’가 다른 두 부사와 대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ㄷ. ㄹ. ㅁ.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몹시’의 [-적 의미]의 영향으로 피수식어의 [+적 의미]와는 공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36)에서 ‘몹시’와 ‘무척’이 질/양 바탕을 공유하면서 서로 유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매우’는 양이나 질의 의미 자질이 없이 정도어를 강조하는 의미 바탕만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무척’의 경우는 (26), (35), (36)을 통하여 [양]의 의미 자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6), (35)의 양 정도어와의 호응 관계에서도 나타나지만, 양 정도어와 ‘무척’과의 호응은 의미가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아도, ‘몹시, 매우’보다는 높은 공기 가능성을 보인다.

이석규(1987:48-49)는 이를 두고 ‘몹시’는 ‘심하게’의 의미를, ‘무척’은 ‘많이’의 내용을 표현한다고 보아, 각각의 의미 자질을 [+질] [+양]으로 보고 있지만, (26), (35)에서 보는 것처럼 의미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무척’의 의미 자질을 [+양]으로 확정지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라고 여겨진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몹시, 무척, 매우’는 일반 정도어와의 호응에서 유의성을 보이거나, 이때 ‘무척’은 [+적 의미]의 정도어와 공기할 때는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이들 부사가 질/양 정도어와 공기할 때에는 ‘몹시, 무척’만이 유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때 ‘몹시’에서는 [+질]의 의미 자질을 확인할 수 있으나, ‘무척’에서는 [+양]의 의미 자질을 가능성으로 남길 따름이다.

그리고, 정도어의 [+적 의미]와의 호응에서 ‘몹시’가 [-적 의미]의 의미 자질을 갖는 반면, ‘매우, 무척’은 [+적 의미]와 [-적 의미]에 두루 쓰인다.

이를 정리하면, ‘몹시’는 【〔정도성〕〔강화〕〔-적 의미〕〔질〕】을, ‘무척’은 【〔정도성〕〔강화〕〔질〕】을, 그리고 ‘매우’는 【〔정도성〕〔강화〕〔강조〕】를 개별 의미로 갖는다. 이상의 논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영역		의미 자질		
		몹 시	무 척	매 우
	+적 의미	- ⁹⁾	+	+

9) ‘몹시’는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적 의미]를 가진 피수식어와도 호응할 때도 있음.

일반 정도	-적 의미	+	+	+
	+적 의미	+	+	-
질/양 정도	-적 의미	+	+	-
	+적 의미	+	+	-

3. '퍽, 썩, 참 께'의 의미 분석

(1) 퍽

1) 사전 의미

보통 정도를 훨씬 지나게, 매우(아주) 지나치게, 썩 많이, 아주, 매우, 몹시

2) 유의어

썩, 께, 썩 많이, 아주, 몹시, 제법

3) 의미 자질 분석

(37)(일반 정도어)

- ㄱ. 영이는 퍽 부지런하다.
- ㄴ. 별들이 퍽 빛난다
- ㄷ. 영이가 퍽 빨리 된다.
- ㄹ. 영이는 퍽 개구쟁이다.

(38)(양분 정도어)

- ㄱ. *숫자의 세계는 퍽 무한하다.

- ㄴ. *그이는 껍 침묵했다.
- ㄷ. *영이는 껍 수재다.
- ㄹ. *꽃이 껍 활짝 피었다.

(39)(양 정도어)

- ㄱ. *빌당이 껍 생겼다.
- ㄴ. *나는 그 사실을 껍 알고 있었다.
- ㄷ. *영이는 생일 선물을 껍 받았다.

(40)(질/ 양 정도어)

- ㄱ. 선생님이 껍 잔소리를 한다.
- ㄴ. 나는 영이를 껍 기다렸다.
- ㄷ. 그 문제에 대해 껍 생각했다.

‘껍’은 일반 정도어와 무리 없이 공기하나, 양분 정도어와는 통합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질/ 양 정도어와 호응이 자연스러우나 양보다는 질에 대해서 공기 관계가 성립한다.¹⁰⁾ 그래서 사전 의미나 유의어를 보았을 때, [질]의 의미 바탕을 갖는 ‘몹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몹시’가 [-적 의미]의 자질이 강한 반면에 ‘껍’은 (41)에서 보듯이 [+적 의미]의 정도어와 두루 호응하여 어느 한 쪽의 의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 (41)그이는 껍 [몹시] 못생겼다.
- 그이는 껍 [*몹시] 잘생겼다.
- 그것은 껍 [*몹시] 적당하다.

10) 이석규(1987:59)는 ‘껍’이 질/양이 미분화된 상태로 양 정도어, 질/양 정도어와 호응한다고 보고 있지만, 양 정도어와의 공기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로써 ‘퓌’의 의미 자질은 【〔정도성〕〔강화〕〔질〕】로 볼 수 있다.

(2)씩

1)사전 의미

보통 정도보다(표준점에서,어떤 기준보다) 훨씬 뛰어나게

2)유의어

(사전에 나타나지 않음)

3)의미 자질 분석

(42)(일반 정도어)

ㄱ.씩〔*멀다/기쁘다/*밋다/좋다/조용하다〕

ㄴ.*씩〔사랑하다/감사하다〕

ㄷ.씩 잘된 글

*씩 단단히 굳었다.

ㄹ.영이는 썩〔미인/*바보/부자〕이다.

(43)(양분 정도어)

ㄱ.*그것은 썩 틀림없다.

ㄴ.*총알이 표지판에 썩 명중했다.

ㄷ.*그 애는 썩 수재다.

ㄹ.*꽃이 썩 활짝 피었다.

(44)(양 정도어)

ㄱ.*주위에 친구들이 썩 생겼다.

ㄴ.*나는 그 사실을 썩 알고 있다.

(45)(질/양 정도어)

ㄱ.*사람들이 썩 다쳤다.

ㄴ.*희망에 썩 부풀다.

‘씩’은 대부분의 정도어와 공기하지 못하며, 일반 정도어에서도 일부와만 호응하고 있다. 즉, 피수식어가 [+적 의미] 일 때 공기 관계가 성립한다. (46)은 (42)에서 호응 관계가 성립하는 예를 정리한 것이다.

(46) ㄱ.씩 [기쁘다/좋다/조용하다]

ㄷ.씩 잘 된 글

ㄹ.씩 [미인/부자]이다.

이와 같이 ‘씩’은 일반 정도어와 호응할 때 피수식어가 [-적 의미] 일 때는 비문이 되지만, [+적 의미] 일 때는 공기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씩’에는 [+적 의미]의 개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6) 외에 (47)에서 ‘씩’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47) 씩 [나가거라/물러가거라/꺼지거라/나오지 못할까]

이석규(1987:63)는 이들 동사와의 호응에서 ‘씩’이 주어진 상황에서 멀찍이 벗어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상태부사라고 보고 있다. 즉, ‘씩’의 중심 의미는 모양 형용인데, [+적 의미]의 일반 정도어와 결합되면서 [강화]와 [바람직한 방향]의 의미로 전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 의미]는 보통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밝힐 ‘씩’의 의미는 모양 형용을 나타내는 상태부사 범주에서가 아니라 정도 강화를 나타내는 정도부사 범주에서 찾을 수 있다. ‘씩’은 앞서 살펴 본 [+적 의미] 외에 보통을 훨씬 뛰어넘는 [뛰어남]의 의미 자질을 갖는다.

‘씩’의 의미 자질은 【[정도성] [강화] [+적 의미] [뛰어남]】으로 나타낼 수 있다.

(3)참

1)사전 의미

‘정말로, 아주, 과연’의 뜻으로 감정이 극도에 달하였을 때 나타냄
감탄사로서 잊었던 일이 문득 생각났을 때나 매우 딱하거나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2) 유의어

- ㄱ. 정말, 과연, 참말로, 짜장, 진소위
- ㄴ. 대단히, 꽤, 상당히

3) 의미 자질 분석

(48)(일반 정도어)

- ㄱ. 날씨가 참 좋다.
- ㄴ. 별들이 참 빛난다.
- ㄷ. 방을 참 깨끗이 청소한다.
- ㄹ. 영이는 참 부자이다.

(49)(양분 정도어)

- ㄱ. 그것은 참 틀림없는 사실이다.
- ㄴ. *동물들이 참 죽었다.
- ㄷ. 영이는 참 수재다.
- ㄹ. 영이는 참 힘껏 달렸다.

(50)(양 정도어)

- ㄱ. *주위에 친구들이 참 생겼다.
- ㄴ. *영이는 그것을 참 기억한다.

(51)(질/ 양 정도어)

- ㄱ. *사람들이 참 다쳤다.
- ㄴ. *영이는 참 웃었다.

‘참’은 양이나 질의 의미 바탕이 없어 양 정도어, 질/ 양 정도어와의 통합이 제한된다. 양분 정도어와의 공기는 ‘참’에 [완전성]의 의미 자질이 있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일반 정도어에 비교할 수 없지만 일부 양분 정도어에 정도성이 있기 때문이다.¹¹⁾ ‘참’은 조금이라도 정도성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수식할 수 있는 강화 능력이 강하다. ‘참’은 질/ 양으로 강화하지 않고 전달 내용의 진실성을 강조한다.

(52) ㄱ. 저런, 시간이 참 빠르구먼.

ㄴ. 너는 참 좋겠다.

ㄷ. 유배란 참 편리한 형벌이었다.

ㄹ. 난 오빠가 참 부러워.

(52)에서 ‘참’은 ‘정말, 진짜, 참말’ 등으로 대치했을 때 문장의 의미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참’은 【〔정도성〕〔강화〕〔진실성〕】을 의미 자질로 갖는다.

(4) ㉞

1) 사전 의미

보통보다 약간 높은(조금 더한)정도로, 어지간히, 제법, 상당히

2) 유의어

꽤나, 비교적, 매우, 상당히, 대단히, 좋이, 제법, 자못, 어지간히, 심히

3) 의미 자질 분석

(53)(일반 정도어)

ㄱ. 어린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꽤 즐거운 모양입니다.

ㄴ. 올봄 이 색깔이 꽤 유행했다.

ㄷ. 못이 꽤 깊이 박혔다.

ㄹ. 그 노인의 머릿속엔 이미 꽤 체계적인 계획표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11) 이석규(1987:66), 앞의 책.

(54)(양분 정도어)

- ㄱ. 인간의 수명은 꽤 유한하다.
- ㄴ. *아기가 꽤 누웠다.
- ㄷ. 영이는 꽤 수재다.
- ㄹ. 영이는 꽤 힘껏 달렸다.

(55)(양 정도어)

- ㄱ. 어린 시절의 추억을 꽤 기억하고 있다.
- ㄴ. 종이 상자를 꽤 만들었구나.

(56)(질/ 양 정도어)

- ㄱ. 나는 그 문제를 꽤 생각했다.
- ㄴ. 비가 꽤 내린다.

‘꽤’는 대부분의 정도어와 공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양] 이나 [질] 을 나타내는 정도어와 잘 호응하므로 [질/ 양] 의 의미 바탕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크기는 앞서 살펴 본 ‘가장, 아주, 매우, 몹시, 부척, 펍, 씩, 참’ 보다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전 의미에도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 하고 있으니, 설령 유의어에 ‘매우’의 모습이 보인다 해도 ‘꽤’의 정도 강화는 보통보다 조금 더한 정도일 뿐이다.

‘꽤’의 의미 자질은 【(정도성) (강화) (질/ 양)】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영역	획	씩	참	꽤
의미자질				
일반정도	+	±	+	+
질(質)	+	-	-	+
뛰어남	-	+	-	-
진실성	-	-	+	-
양(量)	-	-	-	+

4. '월씬, 한결'의 의미 분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월씬

1) 사전 의미

- ㄱ. (어떤 것에 비하여) 그 정도가 씩 더하게,
정도 이상으로 매우 많거나 적게 (차이가 심히 나는 모양)
- ㄴ. 어느 정도에 매우 지나도록
- ㄷ. '월씩'보다 정도가 작은 말

2) 유의어

월등히, 월등하게

한결

1) 사전 의미

보다 더, 제법 꽤, 한층 더, 훨씬, 꽤

2) 유의어

한층, 훨씬, 보다, 씩, 더욱, 특히, 한층 더

3) 의미 자질 분석

(57) 가. 멀리서 볼 때가 [훨씬/한결] 아름다워 보이지요.

나. 저희들 몸집보다 [훨씬/한결] 큰 벌레를 여러 마리 개미가
굴리고 있었다.

다. 세상보다 [훨씬/한결] 너른 세상입니다.

라. 주위의 색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한결] 밝아지고 있었다.

(58) 가. 우리들끼리는 [훨씬/*한결] 전부터 해오던 말인덱쇼.

나.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제 생활이란 [훨씬/*한결] 보잘것
없는 걸 겁니다

다. 여기서 [훨씬/*한결] 북으로 간 곳에 항구가 있다.

라.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한결] 더운 것 같다.

‘훨씬, 한결’은 유의어로 인식되어지지만, 대치되어 쓰이지 않을 때가 있어 그 의미 차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의미 자질을 살펴보겠다.

먼저, (57)에서 보듯이 ‘훨씬’과 ‘한결’은 대치되어 쓰이지만 어느 정도는 의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훨씬’은 기준에서 벗어나되 그 거리가 멀어서 기준점과 벗어난 상태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큼을 나타내는 반면, ‘한결’은 기준에서 벗어나되 ‘훨씬’만큼 그 정도의 차가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¹²⁾

이러한 의미 차이 외에도 (58)에서는 통사적 의미 차이까지도 보여 준다. (58)

12) 이석규(1987:90), 앞의 책.

ㄱ.에서 ‘한결’은 시간을 역행하는 문장에선 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결’은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한결] 날씨가 좋다.’처럼 순행적 시간의 흐름 위에서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58)ㄴ.에서는 ‘한결’이 기준보다 상태가 더 좋아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57)에서 그러한 ‘한결’의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58)ㄷ.을 통해서 ‘훨씬’이 ‘공간’ 비교까지 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결’은 시간상의 변화에 대한 정도 차이만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58)ㄷ. 문장을 통해 정리하면, ‘덥다’보다는 ‘시원하다’를 의도하고자 했을 때 ㄷ.은 시간상 순행하지만, 의미상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결’이 쓰였을 때 비문이 되었다. 이처럼 ‘한결’은 【〔정도성〕〔기준〕〔강화〕〔벗어남〕〕〔미래지향성〕〔+적 의미〕】란 의미 자질을 갖는다.

다음은 다른 여러 정도어들과의 공기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59)(일반 정도어)

- ㄱ.이 색이 저 색보다 [훨씬/한결] 파랗다.
- ㄴ.영이가 철수보다 [훨씬/한결] 향상했다.
- ㄷ.영이가 철수보다 [훨씬/*한결] 시끄럽다.
- ㄹ.영이가 철수보다 [훨씬/*한결] 걱정했다.
- ㅁ.동생이 언니보다 [훨씬/한결] 정확히 움직인다.
- ㅂ.동생이 언니보다 [훨씬/*한결] 슬피 울었다.
- ㅅ.영이가 순이보다 [훨씬/*한결] 미인이다.

(60)(양분 정도어)

- ㄱ.영이 판단은 [훨씬/*한결] 명백하다.
- ㄴ.그는 그 여자보다 [*훨씬/*한결] 침묵했다.
- ㄷ.영이가 철수보다 [훨씬/*한결] 힘껏 달렸다.
- ㄹ.영이가 철수보다 [훨씬/*한결] 전문가이다.

(61)(양 정도어)

ㄱ. 영이가 철수보다 물건을 [월씬/*한결] 팔았다.

ㄴ. 이 집이 저 집보다 [월씬/*한결] 높다.

(62)(질/ 양 정도어)

ㄱ. 그때보다 [월씬/*한결] 멍들었다.

ㄴ. 언니가 동생보다 [월씬/*한결] 운다.

‘월씬’은 모든 종류의 정도어와 호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결’은 일반 정도어에만 국한되어 있고, 또 그 중에도 [+적 의미]의 정도어와만 호응이 가능하다. ‘월씬’은 질과 양으로 강화할 수 있으나, ‘한결’에는 그러한 의미 바탕이 없다. ‘한결’은 순행적 시간이란 흐름 위에서 일부 정도어를 강화하기 때문에 (59)사.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성이 없는 명사와 공기하지 못한다.¹³⁾

즉 ‘월씬’과 ‘한결’은 유의어로 인식되지만 정도성 강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통사론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기준은 상대적 비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월씬’이 시간 공간의 의미 제한 없이 일반 정도어, 양 정도어, 질 양 정도어와 자유로이 공기하며 양분 정도어와도 대부분 공기하는 반면, ‘한결’은 시간상, 의미상 제한을 받으며 일부 일반 정도어와만 공기한다.

즉, ‘월씬’은 【〔정도성〕〔기준〕〔강화〕〔기준과 큰 차이〕】를, ‘한결’은 【〔정도성〕〔기준〕〔강화〕〔벗어남〕〔미래 지향성〕〔+적 의미〕】를 의미 자질로 갖는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 미 영 역	월 씬	한 결
의 미 자 질		

13) 이석규(1987:94), 앞의 책.

기준과 큰 차이	+	-
- 적 의미	+	-
역행적 시간 흐름	+	-

5. '워낙, 자못, 사뭇, 더욱, 하도, 그야말로'의 의미 분석

(1) 워낙

1) 사전 의미

- ㄱ. 본디부터, 원래가
- ㄴ. 두드러지게 몹시(아주), 원체

2) 유의어

- ㄱ. 본래, 본디부터, 원래, 원래부터
- ㄴ. 아주, 원청강, 원체, 특히, 특별히, 매우

3) 의미 자질 분석

(63)(일반 정도어)

- ㄱ. 길이 워낙 멀었다.
- ㄴ. 날이 워낙 따뜻하여 덧옷이 필요없었다.
- ㄷ. 그는 딸을 워낙 사랑해서 먼 곳으로 보낼 수가 없었다.
- ㄹ. 워낙 깨끗이 청소하는 분이라 더 손볼 필요가 없겠다.
- ㅁ. 그 사람은 워낙 애연가라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
- ㅂ. 집이 워낙 새 집이라 칠 냄새가 지금도 난다.

ㄷ. 형편이 워낙 난감스러워 보이는지 아낙들조차도 껍소리가 없다.

‘워낙’은 사전 의미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드러지게’ 피수식어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도를 지나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상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워낙’의 의미 자질은 [원인] 외에 [두드러짐]이라는 의미 자질을 생각할 수 있다.

‘워낙’은 【[정도성] [강화] [원인] [두드러짐]】을 의미 자질로 갖는다.

(2) 자못

1) 사전 의미

생각보다 매우(월씬), 무던히, 껍, 꽤

2) 유의어

껍, 매우, 아주, 썩, 생각보다 매우, 엄청나게

3) 의미 자질 분석

(68) (일반 정도어)

- ㄱ.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 ㄴ. 자못 [사랑하다/걱정하다/애쓰다]
- ㄷ. 자못 [깨끗이/빨리/조용히] 청소한다.
- ㄹ. 자못 [바보/미인/구두쇠] 이다.

(69) (양분 정도어)

- ㄱ. *자못 [유한하다/무한하다/틀림없다/판이하다.]
- ㄴ. *자못 [주다/앉다/죽다]
- ㄷ. *그는 자못 [수제/전문가/악마/건설적] 이다.
- ㄹ. 자못 [*아까/*방금/?힘껏/?활짝]

(64)(양분 정도어)

- ㄱ. 실험 결과가 워낙 분명하니 의문의 여지가 없다.
 - ㄴ. *영이는 철수에게 책을 워낙 줘 버렸다.
 - ㄷ. *그이는 워낙 기술자라서 아무도 당해내질 못한다.
 - ㄹ. 워낙 방금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 꽃이 워낙 활짝 피어서 옆집 정원과 비교가 된다.

(65)(양 정도어)

- ㄱ. *건물이 워낙 생겨서 삭막하다.
- ㄴ. *새들이 워낙 날아간다.
- ㄷ. *영이는 생일 선물을 워낙 받았다.

(66)(질/ 양 정도어)

- ㄱ. *그 문제를 워낙 생각했다.
- ㄴ. *눈이 워낙 쏟아졌다.
- ㄷ. *희망에 워낙 부풀어 잠도 잘 오지 않는다.

‘워낙’은 일반 정도어, 일부 양분 정도어와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반면, 양 정도어, 질/양 정도어와는 통합이 제한된다. ‘워낙’에는 질/양의 의미 바탕이 없다. 일부 양분 정도어어와 공기하는 것은 ‘워낙’의 강화 능력이 강하여 양분 정도어의 정도성과 호응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워낙’이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에 많이 나타나는 통사상의 특징이다. 게다가 ‘워낙’은 보통 정도를 넘어서 강조하는 의미 양상을 보인다. 다음이 그 예이다.

- (67) ㄱ. 하지만 난 그때 워낙 철이 없어서 형님이 집을 나간 것도 알지 못하였다.
- ㄴ. 그 여자는 눈 먼 사람답지 않게 거동이 워낙 가지런하여 우리는 그 여자가 장님이라는 사실을 잊기도 했다.

(70)(양 정도어)

- ㄱ. *영이는 그 사실을 자못 안다.
- ㄴ. *새들이 자못 날아간다.
- ㄷ. *낙지를 자못 잡을 수 있었다.

(71)(질/ 양 정도어)

- ㄱ. *나는 그를 자못 기다렸다.
- ㄴ. *아기가 자못 운다.
- ㄷ. *눈이 자못 내린다.

‘자못’은 일반 정도어와 공기할 뿐 다른 정도어들과는 통합이 제한된다. 그래서 ‘강조’의 기능 외에는 다른 개별 바탕을 지니고 있지 않는 듯하다.

(72)ㄱ. 모처럼 연휴를 맞아 자못 즐거운 표정들이다.

- ㄴ. 내가 비밀을 털어놓자 그는 자못 놀라는 눈치였다.
- ㄷ. 분풀이는 실컷 하였지만, 그래도 마음 속이 자못 편치 못하였다.

(72)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의미는 ‘자못’으로 수식받아 강화되는 정도가 생각 이상이라는 점이다. ‘매우’가 일반 정도어만 수식을 하고 별다른 개별 바탕 없이 단순히 [강조]의 의미만 지니는 반면, ‘자못’은 거기에서 [생각한 정도를 넘음]의 의미를 더한다고 볼 수 있다.

‘자못’의 의미 자질은 【 [정도성] [강화] [강조] [생각한 정도를 넘음] 】으로 나타난다.

(3)사못

1)사전 의미

내내 끝까지, 사무칠 정도로 몹시

2)유의어

ㄱ. 마구, 마냥, 마음껏, 마음대로

ㄴ. 영, 전혀

ㄷ. 늘, 여전히, 내내, 이제까지, 여태껏, 죽

3)의미 자질 분석

(73)(일반 정도어)

- ㄱ. 사뭇 [먹다/기쁘다/부지런하다/멍청하다/어둡다/시끄럽다]
- ㄴ. 사뭇 [사랑하다/걱정하다/고생하다/빛나다]
- ㄷ. 사뭇 [깨끗이/똑똑히/슬피]
- ㄹ. 사뭇 [*바보/?미인/?멋쟁이/?경제적]

(74)(양분 정도어)

- ㄱ. ?사뭇 [유한하다/틀림없다/판이하다]
- ㄴ. *그가 사뭇 [앓다/눅다/죽다/침묵하다]
- ㄷ. *그는 사뭇 [수재/악마/전문가] 다.
- ㄹ. *사뭇 [아까/힘껏/마구/활짝]

(75)(양 정도어)

- ㄱ. 학교까지 사뭇 뛰어갔소.
- ㄴ. 나무를 식목일에 사뭇 심었다.
- ㄷ. 물고기떼가 사뭇 죽었다.

(76)(질/ 양 정도어)

- ㄱ. 선생님이 사뭇 잔소리하신다.
- ㄴ. 강아지가 사뭇 다쳤다.
- ㄷ. 그 문제를 사뭇 생각했다.

‘사뭇’은 양분 정도어를 제외하고는 일반 정도어, 양 정도어, 질/ 양 정도어와의 호응이 자연스럽다. 즉, ‘사뭇’은 [완전성]의 의미 바탕이 없으며 정도어를 질과 양으로 강화한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사뭇'의 의미 자질은 【〔정도성〕〔강화〕〔질〕〔양〕】으로 나타
낼 수 있다.

(4) 더욱

1) 사전 의미

있는 상태에서 정도가 더하게, 한층 더

2) 유의어

ㄱ. 더, 점점 더, 더욱더, 더욱더욱, 우극(尤極), 무장, 갈수록

ㄴ. 더구나, 더군다나

3) 의미 자질 분석

(77)(일반 정도어)

ㄱ. 더욱 [멀다/괴롭다/좋다/따뜻하다/서늘하다]

ㄴ. 더욱 [사랑하다/그리워하다/걱정하다/발달하다]

ㄷ. 더욱 [깨끗이/널리/부지런히]

ㄹ. 더욱 [바보/미인/멋쟁이/전설적]

ㅁ. 더욱 [새/헌/옛/윗]

(78)(양분 정도어)

ㄱ. 더욱 [유한하다/틀림없다/판이하다]

ㄴ. 더욱 [주다/버리다/앉다/눕다]

ㄷ. 더욱 [수제/악마/전문가]

ㄹ. 더욱 [*아까/*방금/마구/힘껏]

(79)(양 정도어)

ㄱ. 전학을 오니 친구가 더욱 생겼다.

ㄴ. 식목일에 나무를 더욱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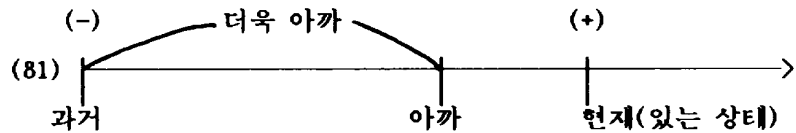
ㄷ. 나는 그 길을 더욱 갔다.

(80)(질/ 양 정도어)

- ㄱ. 강아지가 더욱 다쳤다.
- ㄴ. 영이가 철수보다 더욱 웃었다.
- ㄷ. 비가 더욱 오는데요.

‘더욱’은 일반 정도어, 양분 정도어, 양 정도어, 질/양 정도어 등 모든 정도어와 호응이 자연스럽다.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정도가 더해짐을 나타내며, 그 기준에서 (+방향)으로 의미를 강화한다.

(78)ㄹ에서 보이는 ‘아까, 금방’과의 비문성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더욱’이 강화하는 정도성의 영역 구간은 있는 상태를 중심으로 +방향 선상 전체인데, ‘아까’보다 정도성이 강화되면 시간의 흐름상 - 방향으로 크기가 옮겨져 의미가 어색하게 된다.



즉, ‘더욱’은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 영역의 모든 구간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른 정도 부사보다 구간이 넓기 때문에 모든 정도어와 공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은 【〔정도성〕〔기준〕〔강화〕〔기준보다 큼〕】을 의미 자질로 갖는다.

(5)하도

1)사전 의미

‘하’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하’-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나 의문문에서 ‘많이, 크게’와 같은 뜻을 나타냄.

2)유의어

너무, 부족, 많이, 크게
3)의미 자질 분석

(82)(일반 정도어)

- ㄱ.길이 하도 멀다.
- ㄴ.나는 그를 하도 사랑한다.
- ㄷ.하도 게을러 못봐 주겠다.
- ㄹ.하도 바보라 어찌할 수가 없다.

(83)(양분 정도어)

- ㄱ.그 사실이 하도 틀림없어 반박할 수가 없다.
- ㄴ.선배가 책을 하도 주어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다.
- ㄷ.영이는 하도 수재라 막히는 게 없다.
- ㄹ.하도 힘껏 달려 넘어질 뻔했다.

(84)(양 정도어)

- ㄱ.선물을 하도 받아, 들고 갈 수가 없다.
- ㄴ.벌레가 하도 생겨나 살충제도 필요 없다.
- ㄷ.새들이 하도 날아간다.

(85)(질/양 정도어)

- ㄱ.강아지가 하도 다쳤다.
- ㄴ.아이들이 하도 웃는다.
- ㄷ.비가 하도 와 다리가 물에 잠겼다.

‘하도’는 정도성의 영역 구간이 넓어 모든 정도어와 공기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의미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도’는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에서가 훨씬 자연스럽게 쓰인다. 그리고 그 강화하는 정도가 아주 큼을 보여준다. 다음 (86)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자.

(86) ㄱ. 시절이 하도 참혹하와 서당은 일시 닫아두고 집앞의 화전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ㄴ. 자네들 하는 짓이 하도 답답하고 불안해서 물러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야!

ㄷ. 하도 어이가 없어 그 보은동집에 직접 가보았다.

‘하도’는 [정도가 지나침]의 의미를 보여준다. 사전 의미에서 ‘많이, 크게’와 같은 뜻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이들 부사가 상태 부사라는 점에서 ‘하도’의 정도부사 영역과 구분해야 할 것이다.

‘하도’의 의미 바탕은 【 [정도성] [강화] [원인] [지나침] 】으로 정리할 수 있다.

(6) 그야말로

1) 사전 의미

(말한 바와 같이) ‘참으로’의 뜻.

전달되는 사실을 힘주어 말할 때에 쓰임.

2) 유의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진소위

3) 의미 자질 분석

(87) (일반 정도어)

ㄱ. 길이 그야말로 멀다.

ㄴ. 영이는 나를 그야말로 사랑한다.

ㄷ. 영이는 그야말로 깨끗이 청소한다.

ㄹ. 영이는 그야말로 미인이다.

(88) (양분 정도어)

ㄱ. 인생은 그야말로 유한하다.

ㄴ. 영이는 그야말로 침묵했다.

- ㄷ. 영이는 그야말로 멋쟁이다.
- ㄹ. 그는 그야말로 마구 달렸다.

(89)(양 정도어)

- ㄱ. *영이는 그 사실을 그야말로 알았다.
- ㄴ. *새들이 그야말로 날아간다.
- ㄷ. *식목일에 나무를 그야말로 심었다.

(90)(질/양 정도어)

- ㄱ. *나는 그 문제를 그야말로 생각했다.
- ㄴ. *강아지가 그야말로 다쳤다.
- ㄷ. *나는 그를 보고 그야말로 웃었다.

‘그야말로’는 [양] [질/ 양]의 의미 바탕이 없어 [질]이나 [양]으로 정도성을 강화하지 못한다. [강조]로써 강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91) ㄱ. 거례를 위하여 한 몸을 바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람있는
거룩한 일이다.
- ㄴ. 그야말로 최고의 음식 맛이다.
 - ㄷ. 내가 돌아와 줘 그야말로 기쁘다.

(91)에 나타난 ‘그야말로’는 사전 의미에서 보는 것처럼 ‘참으로’와 의미 바탕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참으로’가 ‘참’이 강조된 부사라고 할 때 ‘참’의 의미 바탕인 [진실성]을 ‘그야말로’의 의미 바탕으로 볼 수 있다. 즉, ‘그야말로’는 질/ 양이 아닌 진실성으로 전달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의 의미 자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정도성] [강화] [진실성] 】

Ⅲ. 결 론

이 글은 한국어 부사 중 몇 개의 정도부사에 대해 의미분석을 시도하고자 했다. 정도부사는 속성의 드러나는 정도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관성이 강하고 가변적이지만, 개념적 의미의 존재를 생각할 때 그 의미 분석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각 개별 의미를 찾기 위해 정도부사와 피수식어는 정도성 바탕을 공유하며 연결된다는 점에서 피수식어를 네 가지 정도어로 분류하여 정도부사와의 공기관계를 살펴 보았다. 다음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가장, 아주, 매우, 몹시, 무척’은 보통 유의어로 인식되는데, ‘가장’은 그 개별 의미가 [최고점], ‘아주’는 [지나침], ‘몹시’는 [-적 의미] [질]을 ‘무척’은 [질]을, ‘매우’는 [강조]를 각각 개별 의미 바탕으로 하여 의미 차이를 보인다. ‘아주, 몹시, 무척, 매우’는 일반 정도어와 공기할 때 각 개별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2. ‘퍽, 썩, 참, 꽤’는 각각 [질], [+적 의미] [뛰어남], [진실성], [질/양]의 의미 특성을 갖는다. 일반 정도어와의 공기 관계에서 이들 부사들이 유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훨씬, 한결’도 유의어로 인식되지만, ‘훨씬’은 ‘한결’보다 강화 정도가 크다. ‘훨씬’은 [기준과 큰 차이]를, ‘한결’은 [벗어남] [미래지향성] [+적 의미]를 개별 의미로 가져 의미 차이를 보인다.

4. ‘워낙’은 [원인] [두드러짐], ‘자못’은 [강조] [생각한 정도를 넘음], ‘사뭇’은 [질/양], ‘더욱’은 [기준보다 큼], ‘하도’는 [원인] [지나침], ‘그야말로’는 [진실성]을 각각 개별 의미로 갖는다.

위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 도 부 사	가	아	몹	무	매	떡	씩	삼	패	혈	한	위	자	사	더	하	그
의 미 자 질	장	주	시	척	우					신	결	낙	못	못	욱	도	야
말 로																	
정 도 성	+	+	+	+	+	+	+	+	+	+	+	+	+	+	+	+	+
강 화	+	+	+	+	+	+	+	+	+	+	+	+	+	+	+	+	+
기 준	+	-	-	-	-	-	-	-	-	+	+	-	-	-	+	-	-
일 반 정 도	+	+	+	+	+	+	±	+	+	+	+	+	+	+	+	+	+
양 분 정 도	+	+	-	-	-	-	-	+	+	+	-	±	-	-	+	+	+
양 정 도	-	+	-	?	-	-	-	-	+	+	-	-	-	+	+	+	-
질 / 양 정 도	-	+	+	+	-	+	±	+	+	+	-	-	-	+	+	+	-
최 고 점	+	±	-	-	-	-	-	-	-	-	-	-	-	-	-	-	-
지 나 침	-	+	-	-	-	-	-	-	-	-	-	-	-	-	-	+	-
+ 적 의 미	+	+	±	+	+	+	+	+	+	+	+	+	+	+	+	+	+
- 적 의 미	+	+	+	+	+	+	-	+	+	+	-	+	+	+	+	+	+
강 조	-	-	-	-	+	-	-	-	-	-	-	-	+	-	-	-	-

뛰어남	-	-	-	-	-	-	+	-	-	-	-	-	-	-	-	-	-
진실성	-	-	-	-	-	-	-	+	-	-	-	-	-	-	-	-	+
기준과 큰 차이	-	-	-	-	-	-	-	-	-	+	-	-	-	-	-	-	-
벗어남	-	-	-	-	-	-	-	-	-	-	+	-	-	-	-	-	-
시간적 역행성	+	+	+	+	+	+	+	+	+	+	-	+	+	+	+	+	+
원인	-	-	-	-	-	-	-	-	-	-	-	+	-	-	-	+	-
두드러짐	-	-	-	-	-	-	-	-	-	-	-	+	-	-	-	-	-
생각한 정도를 넘음	-	-	-	-	-	-	-	-	-	-	-	-	+	-	-	-	-
기준보다 큼	-	-	-	-	-	-	-	-	-	-	-	-	-	-	+	-	-



이상, 사전 풀이상으로나 언중들의 인식상으로나 유의어로 받아들이던 몇 개의 정도부사와 의미 분석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정도부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들 부사들 외에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 부사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일은 다음 과제로 남기겠다.

◆ 참 고 문 헌

- 김경훈(1977), “국어의 부사 수식 연구”, 국어 연구 제 37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 연구회.
- 김민수(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
- 김종택·천시권(1984), 국어 의미론, 형설출판사.
- 박선자(1983), “우리말 어찌치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서정수(1975), “국어 부사류어의 구문론적 연구”, 현대국어문법, 연구논문선(4), 계명대학 출판부.
- 신현숙(1987), “‘의미’와 ‘의미’연구의 위치 정립을 위하여”, 건국 어문학 제 11, 12합집, 건국대학교 국어 국문학 연구회.
-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심재기·이기용·이정민(1985), 의미론 서설, 집문당.
- 양인석(1975), “한국어 부사의 의미(1)”, 어학교육 7,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
- 염선모(1984), “의미의 성분 분석에 대하여”, 유창균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 이석규(1987), “현대국어 정도 어찌치의 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_____ (1988), “정도 어찌말의 특질 연구”, 목원 어문학(7), 목원대 국어교육과.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 문법론, 학연사.
- 이충우(1986), “국어 정도부사의 동사 수식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희승(1961, 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임지룡(1990), “의미의 성분 분석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국어 교육 연구(22), 경북대 국어교육 연구회.
- 정교환(1984), “국어 부사 연구”, 어학 논지 창간호.
- 정철주(1982), “현대 국어의 정도부사 연구”, 한국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규일(1988), “우리말 ‘뜻’의 의미 기능”, 국어국문학 제100호, 국어국문학회.
- _____ (1994),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 38집, 제주대학교.
- 최오남(1991), “정도부사의 자질/등급화에 관한 연구”, 국어 연구(67), 국어 연구회.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길(1983), “정도 어찌치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95호, 국어국문학회.
- 허웅(1983), 언어학 개론, 샘 문화사.
- 홍사만(1977), “국어 정도부사와 상태부사의 비교 연구”, 동양 문화 연구 제 4집,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
- _____ (1984), “Leech의 의미론”, 어문론총(18), 경북대 인문대.
- 홍영모(1976), “국어 유의어의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신기철·신용철(1985),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한글학회(1973), 새 우리말 사전, 홍자 출판사.
한국어 사전 편찬회(1976, 1980), 한국어 대사전, 현문사.
Leech, G. (1974), *Semantics: The study of Meaning*, Penguin Books.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Ullmann, S. (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의미론, 의미 과학 입문, 남성우역, 탑 출판사.
Hayakawa, S. (1982), 의미론, 김영준역, 현음사.



◇ <ABSTRACT>

An Analysis of Meaning on the Korean Degree Adverb

KO, YI-GEUM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ŎE, GYU-IL

In the basis that degree adverb has both modifyee and degree features I have been trying to manifest individual meanings of some degree adverb in this essay.

I found meanings in the contexts and situations. After the analysis of ingredients I was trying to decide individual meaning nature in relation of co-occurrence.

At this time, the range of modifyee was so wide that I can't help classifying: general degree word, bisectional degree word, quantity degree word and quantity/quality degree word. And then I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words and co-occurrence.

In this essay analyzed adverbs are limited to; these words ; Gajang, Aju, Maewoo, Mopsi, Muchuck, Puk, Cham, Howlsin, Hangyul, Wonak, Jamot, Samut, Deouk, Hadou and Geuyamalo.

Firstly, in case the words such as 'Gajang', 'Aju', 'Maewoo', 'Mopsi' and 'Muchuck' co-occur with general degree words their individual meanings are not distinct. So they are in similar meaning relationship. But 'Gajang' means [highest point], 'Aju' [excessive], 'Maewoo' [emphathetic], 'Mopsi' [negative meaning] [quality] and 'Muchuck' [quality] individually.

Secondly, words such as 'Puk', 'Suk', 'Cham' and 'Gae' mean [quality], [positiv meaning] [excessively], [truth] and [quality / quantity] respectively.

Thirdly, the meaning of 'Hewlsin' is stronger than that of 'Hangyul'. 'Hewlsin' takes [far away from standard] as a individual meaning but 'Hangyul' [secession], [futuristic] and [positive meaning].

Fourthly, 'Wonak' means [cause][promince], 'Jamot' (emphathetic) [higher than one's thinking], 'Samut' [quality/quanty], 'Deouk' [more than standard], 'Hadou' [cause][excessive] and 'Geuyamalo' [truth] individually.

As above we have studied changeableness and imperfection of degree features made it difficult to objectify the analysis of meaning. But thinking the conceptual meanings I have been trying to systematize the meaning of degree adverb with a above-mentioned method.

